

광주·전남 6·4지방선거 999명 후보 등록...경쟁률 2.4대1

광주 97곳 244명 등록 2.51대1

전남 325곳 755명 등록 2.32대1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999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광주시장·전남지사과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등록 마감결과 총 999명이 등록해 2.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각 선거구에서 1명씩만 출마해 무투표 당선은 눈앞에 둔 곳도 광역의원 13곳과 기초의원 8곳 등 21명에 달했다.

광주는 총 97명을 뽑는 7개 선거구에 광주시장 후보 7명을 비롯, 총 244명이 등록해 2.5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 지역은 총 325명을 뽑는 7개 선거에 전남도지사 후보 3명 등 755명이 등록해 2.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의 경우 시장 1명, 교육감 1명, 구청장 5명, 시의원 22명(비례 3명 포함), 구의원 68명(비례 9명 포함)을 뽑는다.

전남에서는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장·군수 22명, 도의원 58명(비례 6명 포함), 시·군의원 243명(비례 32명 포함) 등 422명을 선출한다.

◇광주=광주시장 선거에는 새누리당

이정재·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통합진보당 윤민호·노동당 이병훈·무소속 강운태·이병안·이용섭 후보 등 7명이 등록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는 김영수·김왕복·양형일·윤봉근·장희국 후보 등 5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광주 5개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16명이 등록해 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 동구 4명, 서구 3명, 남구 3명, 북구 4명, 광산 2명이 각각 출마했다.

19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광주시의원 선거에는 59명이 등록해 3.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59명을 뽑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 132명이 등록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명을 뽑는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에 8명이 등록해 2.7대1, 9명을 뽑는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에 17명이 등록해 1.9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전남=전남도지사 선거에는 새누리당 이종호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 등 3명이, 도교육감 선거는 김경택·김동철·장만채 후보 등 3명이 등록했다.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80명이 등록해 3.6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무소속 후보가 50명이 등록해 새정치연합 대 무소속 후보 간 대결구도가 치열할 전망이다.

52명을 뽑는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는 116명이 등록해 2.23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82개 선거구의 기초의원 선거에는 473명이 등록해 무려 5.7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명의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는 6개 정당 14명이 등록했으며 32명을 뽑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시·군 의원 선거에는 66명이 등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 텃밭서 무소속 돌풍일까

전체 후보 40%가 무소속

경선 탈락 단체장 최대 변수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의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출마자가 광주·전남지역 전체 후보의 40%인 39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 VS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경쟁구도와 함께 무소속 돌풍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자 991명(교육감 제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458명으로 46.2%를 차지했다.

이외 무소속 출마자가 391명(39.5%)에 달했으며, 정당 후보로는 새누리당 후보자 23명(0.02%), 통합진보당 후보자 132명(13.3%), 정당 19명, 노동당 10명, 녹색당 3명, 새정치당 3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심장부인 광주에서 무소속 돌풍에 휘청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 했지만, 이에 반발해 탈락한 강운태·이용섭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이긴 하지만, 강 후보와 이 후보가 단일화해 양자 대결구도가 될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일

반적인 관측이다. 광주 구청장 선거에는 6명이,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무려 50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배제됐거나 일말까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현역 단체장 후보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시와 순천시, 나주시, 영암군, 곡성군 등은 새정치연합 후보 대 현역 단체장 출신의 무소속 후보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여기에 옛 민주계와 새정치연합계 사이의 심각한 공천 갈등으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전남지역 새정치계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상당수에 달해 무소속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장 선거에서 강운태, 이용섭 후보간 무소속 단일화에 이어 기초단체장 후보와의 무소속연대가 실현될 경우 막강한 세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역의원 선거에는 23명, 전남 광역의원 선거에는 44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기초의원 선거에도 무려 265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표를 던져 이들의 선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변수까지 겹치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무소속 돌풍이 '잿밭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장 후보들 3인3색 '5·18 정책' 공약 발표

윤 "박승춘 사퇴해야"

강 "5·18 헌법전문 삽입"

이 "시민통합위 구성"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이 파행을 맞은 18일 광주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거부 등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5·18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는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거부하면서 국가기념식의 파행을 자초했다"면서 "따라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존단체에 동원령을 내린 것 역시 군사독재 시절의 구태이며, 이는 5월 영령들을 육보이는 일이고,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며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박승춘 보존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강운태 후보는 "5월 유공자들의 예우를 향상하고 5월 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마북동 선거사무소에서 5·18 34주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5·18 유공자 예우향상 및 5월 정신 세계화를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강 후보는 "현재 헌법 전문에는 3·1운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 추모제'에 참석한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왼쪽부터)를 외면한 채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동과 임시정부 및 4·19 정신만이 언급되었지만, 우리나라 민주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서 5월 정신을 빛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5·18 평화세력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 엄벌하고 민주유공자를 위한 전용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트라우마센

터 독립법안 및 요양시설 건립, 5·18 사적지를 연계한 '오월길'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소속 이용섭 후보는 "아픈 5월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희망의 5월'을 만들기 위한 시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의 힘을 통해 광주정신과 가치를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5월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달', '광주의 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5·18을 국민적 기념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시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출직의 꿈' 3선 연임...7명 도전

광주 북구·구례·보성·고흥·영암·장흥·영광

6·4 지방선거에서 선출직의 꿈인 3선 연임에 도전장을 내민 단체장은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7명이다. 재선 단체장이라면 대부분이 3선 연임을 노려보지만, 그리 쉬운 도전이 아니다. '두 번이나 했으면 충분하다'는 여론부터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전횡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까지 3선 연임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인사, 예산 편성, 각종 행정 등을 펼치면서 상대적으로 이익보다는 소외를 받았다고 느끼는 공직자와 지역민이 많다는 점

도 걸림돌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현역 단체장이 3선 도전장을 내민 곳은 광주 1곳, 전남 6곳 등인데, 광주에서는 송광운 북구청장 후보 1명뿐이다. 전남은 서기동(구례), 정중해(보성), 박병중(고흥), 김일태(영암), 이명홍(장흥), 정기호(영광) 후보 등이다.

김일태 후보를 제외한 6명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에서 경쟁 후보를 제쳤거나 단수추천 등으로 무난히 통과했다. 전남이 전통적인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강세지역이라는 점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한 셈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호

老安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상주사우병원 / 연평동 / 신세계백화점 / 밝은광주안과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특보
희망가득전환대출
※대상 : 아파트 담보대출

여신전문기관
(시금용 또는 캐피탈, 파이낸셜, 저축은행 등)

"고금리대출"을
신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골목상권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연2.0%~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 - 4474

광주새마을금고 신입직원 모집공고

저희 광주새마을금고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새마을금고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구분: 계약직 신규 직원
2. 모집인원: 0명
3. 응시자격: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응시방법:
 - 기 간 : 2014년 5월 14일 ~ 2014년 5월 21일
 - 접 수 : 방문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첨부 : 최근3개월이내)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6. 기타 사항: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제, 공휴일 휴무
 - 급여 및 복리후생은 당 금고 기준에 준함
7.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246번길 3(양동) 광주새마을금고
 - 기타문의 사항 TEL 062)361-3515 ~ 7(총무과)